

#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2023년 11월 26일)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마태오 25,31-32)



이스라엘 나자렛 주님탄생예고 성당 '그리스도 왕' 스테인드 글라스 | 출처:위키미디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40)**



##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405번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405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연중

J. W. Peterson  
C<sub>7</sub>

1.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잊을수 없 - 노 라
2. 내앞이 캄캄한 그때일을 잊을수 없 - 노 라
3.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가도 주님만 계시오 면

- 어둠의 괴롭던 그 날가고 구세주 뵈옵던 날  
정의와 불의가 교차된 날 한 없이 슬펐노 라  
어떠한 괴로움 두려움도 말 없이 사라지 네

- 오주여 반기리 친구되어 이 내 몸 가지소 서  
평화가 사라진 무덤위에 찬 바람 불어오 고  
주여나 당신께 무릎 꿇고 간절히 바라오 니

- 어두움 버리고 충만한 기쁨을 영원히 고백하 리  
어두운 나그네 갈 길을 잃고서 하늘만 바라보 네  
젊음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힘차게 나가리 다

- 영광이 주께 가득하 소 서  
갈 길은 멀고 땅 거미지 네  
힘차게 세상 살아가 리 다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최후의 심판

(마태 25,31-46)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대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41 그대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5 그대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8.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9.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0.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 11.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책 26번 '주님의 기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의 기도

26

2010 KYD

Fr.이용현

G C Am7 Dsus4 D7

하늘 에게 신우 - 리 아버지 - 아버 지의 이름이 - 거룩히 빛나시며 - 아버

5 G C Am7 Dsus4 D7

지의 나라가 - 오시며 - 아버 지의 뜻 - 이 - 하늘에 서와 같이 -

9 B7 Em Em(7#) Am7 D7sus4 D7 G

땅 에 서 도 이루 어 지 소 서

13 CM7 D/F# Am7 Dsus4 D7 G

오늘 저희에게 일 용 할 - 양 식을 - 주 - 시 - 고 - -

17 CM7 D/F# Am7 CM7 D7sus4 D7

저 희 에 게 잘못 한 - 일 을 - 저 희 가 용 서 하 - 오 니 - 저 희

21 G Em7 Am7 CM7 D7sus4 D7

죄 를 용 서 하 - 시 고 - 저 희 를 유혹 에 빠 지 지

25 G Em Em(7#) Am7 Dsus4 Gsus4 G

- 않 게 하 - 시 고 - - - 악 에 서 구 하 - 소 서 저 희

29 Gsus4 G Am7 D7sus4 D7 Gsus4 G

서 악 에 서 구 하 - 소 서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반 모임 및 성당 행사에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와 이웃 사랑의 한 실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BL1)
- 전교 주일을 맞아, 나를 먼저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오롯이 느끼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NV1)
- “더러는 의심하였다.”라는 말씀 안에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사 중에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미사 후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NV1)
-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과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NV2)
- 내가 사랑이라 생각하고 행했던 전교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부담스럽고 힘에 겨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NV2)
-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NV2)
- 문 아델라 자매님과 같은 반원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입관 예절을 통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고, 장례미사의 신부님 강론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NV4)
-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듯,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일상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RC2)
- 제자들도 더러는 의심하며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심을 품게 되더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C2)
- 요즘은 어렸을 때처럼 순수한 신앙심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내왔었는데,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듣고 전쟁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RC2)
-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 나의 부족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힘든 일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TR5)
- 비록 더러는 의심하고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나이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희망한다면 언젠가 자연스레 그 길을 걷게 되리라 믿습니다. (TR5)

## 문명희 아델라 자매님 장례미사 때 딸 콜렛 수녀님의 추모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엄마의 입관 예절과 장례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챙기기보다 항상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즐기던 음식이 아니어도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던 엄마였고, 자신의 몸이 그렇게 아프데도 다른 가족이 아프면 그것에 더 마음 쓰고 걱정하던 엄마였습니다.

매일 매일 온 정성을 담아 준비해 주었던 엄마의 요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맛볼 수 없는 최상의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매년 휴가를 나올 때마다, 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한가득 사다 놓으시고 열흘 동안의 메뉴를 다 짜 놓고 손꼽아 기다리시던 엄마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신 할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하셨던 사랑받는 딸이자 며느리였고,

외삼촌들에게도 든든한 의지가 되던 누나였으며,

인자하고 배려 많던 시어머니였고,

넘치는 사랑만을 주었던 할머니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동생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엄마였고

아빠에게는 46년을 같이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이고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어주고 연결해 주던 존재인 엄마...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고 무조건 기댈 수 있었던 그런 엄마...

그런 엄마가 며칠만 더 있으면 70번째 맞는 생신인데

이렇게 일찍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금방이라도 나와서 환히 웃으며 ‘희진아’하고 부를 것만 같은데

그런 엄마가 저희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아픈 내색도 잘 하지 않던 엄마였습니다.

긴 항암 치료와 그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점점 견디지 못해 많이 힘들어 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는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 고생 안 시키게 딱 며칠만 병원에서 아프고, 자는 듯이 가는 것이 바램이라고요.

그런데 엄마 말처럼... 그 바램처럼 정말 그렇게 가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자는 듯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끝까지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생을 마무리하셨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자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편안한 모습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고통도 없는 곳에 가신 엄마임을 알기에 너무 슬프지만 편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는 저의 마음 속에 항상 그리운 존재로 남겠지만,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립고 그리운 마음에 한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쯤 성모님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 계신 곳으로 평화로이 가고 있을 엄마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 주님 손에 엄마를 맡기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하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가 주었던 넘치는 그 사랑 평생 기억하고 또 기억할게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너무 너무 그리울 거예요...

2023. 10. 6 문희진 콜렛 올림





## 본당 성서 공부 질문과 응답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주임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성서 강의를 본당 홈페이지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 공부 중에 궁금한 사항은 반장님이나 Google Form으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해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신명기 9장 4절, "주님께서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꼭 이번 신명기에서 궁금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신명기를 읽으면서 순간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악"은 교화의 기회나 회개를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존재인가요? 그래서 쫓아내시는 건가요?

**A** 아마도 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악과 하느님의 관계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정립하려고 한 관계의 문제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느님이 온전히 선하신데 그 선하심의 섭리 안에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요. 일단 신학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악은 하느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 피조물의 부산물이라는 개념이 적절합니다. 선과 악을 선택하고 행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밖에 없습니다. 악은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의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뭐랄까요? 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지구적인 고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도 이 쓰레기와 속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하느님의 직접적인 피조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부산물이기에 그 또한 어쨌든 하느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기는 한 것이죠. 하지만 쓰레기든 악이 되었던 그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 인간의 책임인 악도 회개와 뉘우침이 따른다면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무엇입니다. 신명기에서 악을 쫓아낸다는 표현은 악 자체를 용서받을 수 없는 무엇으로 단정을 지었다기보다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민족을 구분하기 위한 단순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여기 문맥에서만큼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은 한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악해서 쫓겨나는 것이지 너희들이 선해서 그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고 강조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듯 합니다.

**Q**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외국인에게 팔아야 한다." 15장 3절,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빛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 15장 8절,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 23장 20절, "이방인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도 되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위 구절들에는 마치 동족에겐 잘하고 동족 외에는 뭐든 박하게 굴어도 된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지 않고 다시 받을 요량으로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마태오 복음서 5장 46절,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이 말씀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A** 맞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문맥에 맞게 잘 파악하신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동족과 이방인을 가장 극명하게 가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명기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듯하고요.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역사적 문맥에서 파악한다면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의 울타리로 한정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차별의 울타리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신명기에서 한정 지어진 사랑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정이 걷어진다고 보면 좋을듯 합니다.

**Q** 신명기 20장 1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그 성읍에 화친을 제안해야 한다. 그 성읍이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말씀에 화친을 제안해서 받아들이면 노역자로 삼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또한 20장 16-17절,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등등 이렇듯, 성서에서 가끔 이러한 부분과 비슷한 느낌, 즉 저자가 살짝 흥분했다는 느낌의 문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구들도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문장 흐름이나 그때 시대상을 조금 묘사하는 정도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A** '전멸'이라는 표현은 사실 겉으로는 전쟁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전투에서 전멸이란 전리품을 챙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되고 그것은 상대편 적을 완전 봉헌물로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투라는 노고를 치렀지만, 그 무엇도 가지지 않고 하느님께 오롯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사 때도 여러 가지 제물의 형태 가운데 완전 번제물이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최상의 제물이 됩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림으로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 봉헌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민족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민족과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근절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화친을 제안하지만 이미 화친을 제안하는 쪽이 군사적 우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숨을 살려 주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에 투항한 자들을 노역자로 삼는 것은 당시의 정서로는 자비로운 행동이 됩니다. 성서 안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시대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면의 보편적인 의미를 고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 겁니다. 쉽지 않은 작업의 형태이기에 노력이 필요하지만, 서서히 익숙해져 가면 성서에 대한 맛을 꾸준히 알게 됩니다. 꾸준히 그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